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6년 1월호

통권 제 15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12월 교우소식

새 교우

♣ **이보미씨**(81년생), 중구 경운동 89-4 ☎ 010-3129-2236. 이보미씨는 경운동으로 이사와서 정독도서관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도서관에서 대학원 시험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이리 저리 찾았다고 한다. 시험에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내년에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할 예정이다. 전에는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전병욱목사 시무)에 다녔었고, 집을 이사해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보금자리를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 삼일교회에 다니는 친구랑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다.

♣ **추혜숙씨**(58년생), 종로구 원서동 4-7 ☎ 010-9921-0700. 추혜숙씨는 강남쪽에 살다가 원서동으로 이사를 와서 강춘자권사님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 남편이 풍문여고에서 교사로 재직중이라 이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되었다. 전에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였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원하셔서 새벽기도회에 반주를 하고 있으며, 2부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별 세

☎ **고 최성진** 목사(최혜경 선생 부친, 65세)
5일 별세 7일 장례.

유아 세례

☎ **민승홍**- 민경탁, 주연수 교우 2남 12월 18일
유아세례

환 자

- ☎ **강석남** 집사(문유심 집사 부군),
일산백병원 1058호.
- ☎ **이진** 집사, 서울대학병원 5409호.
- ☎ **정윤식** 집사(황영주 집사 부군),
일산백병원 805호.

축 하

- ☎ **이 본**장로, **박정음** 장로, 한울장로성가단 정기
연주회를 12월 5일(월) 오후 7시에 햇빛회관 사
랑의 성전에서 가졌다.

출 국

- ♠ **곽원섭·한행자** 집사, 5일(월) 자녀방문차 미국
출국.

출 산

- ♣ **박동훈·전수연** 교우(박호균·안부강 집사 3남),
11월 30일 득녀. 아기 이름 박소라
- ♣ **윤백영** 집사·**김윤신** 교우(윤범구 교우 2남),
22일 득남. 아기 이름 윤현섭
- ♣ **이수정** 교우(이병근·민혁근 집사 딸), 득남.
아기 이름 김준서.

사 임

- ☎ **최혜경** 1부 찬양대 지휘
- ☎ **김효중** 1부 찬양대 반주
- ☎ **서민영** 1부 찬양대 솔리스트

입 대

- ☎ **권진혁** 군(청년부), 6일(화) 의정부 306보충대.

새가족 만남의 날

하반기 새가족 만남의 날이 12월 4일 제직회시에 본당에서 있었다. 7월부터 11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2부 예배시에 전체인사를 통하여 교회 앞에 소개가 되었다. 새가족들은 친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성가대석에 앉아서 환영행사에 참석하였다.

하반기에 등록한 새가족들은 찬양대 솔리스트들을 포함하여 총 36명이고 그중 약 15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교인관리국장인 계명의 권사의 사회로 진행하여 교역자와 장로 권사 등 향존직분자들과 제직들이 새가족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이분장로가 나와서 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하였고, 새가족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가족들은 각자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동기와 소감, 앞으로의 다짐 등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새가족들을 보다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소개가 끝난 후 새가족들을 향하여 축복송을 불렀는데,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도왔다. 축복송을 부르면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또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였는데, 성경책 찬송가 합본을 선물로 준비하였고, 또 담임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은 액자를 선물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축복기도 후 모든 교우들이 한사람씩 악수하며 마무리했다. 하반기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현웅 김관수 조성연 박대완 김신일 박미숙 유한주 서하연 이루리 이동심 전영미 김학영 강충일 정두심 김정은 곽규성 조현정 곽현성 이하영 고현창 신기섭 이옥선 장학귀 김우섭 고해란 이광태 강정녀 손은자 강선영 홍경임 유정희 음미형 김삼임 정장미 전원갑

구역연합예배

2005년도 하반기 구역연합예배가 12월 9일 본당에서 있었다. 김해자 권사의 사회로 11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홍세진권사가 기도를 하였다. 이날 설교는 박병욱 담임목사가 누가복음 17:5-10절의 말씀으로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헌금기도는 조정순집사가 하였고 이날

점심식사는 11교구와 12교구에서 정성껏 준비하였다.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는 교인관리국에서 한 해동안 구역예배를 마무리하는 표시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드렸다.

노년부 은빛 나들이

11월 3일 노년부에서는 “단풍 낙엽과 함께 하는 은빛나들이”를 다녀 왔다. 장소는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창덕궁으로 정했다. 창덕궁 정문 앞에서 오전 10시에 모여서 입장을 하였는데 창덕궁과 비원, 옥류정을 다녀 왔다. 특별히 이번 나들이는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 명성있는 건축 전문 교수이신 우리 교회 윤장섭 집사가 창덕궁의 곳곳을 직접 안내하였다. 각 건축물들과 궁궐등을 전문적이면서도 재미있고 구수하게 설명을 해 주어서 모두가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계절의 아름다운 단풍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나들이 후 <용정>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년부 특강 및 작은음악회

12월 7일(수) 오후 12시 30분에 노년부에서 주최하는 특강과 작은 음악회가 있었다. 먼저 친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특강은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인제대 가정의학과 의사인 김철환교수가 강의를 하였다. 이어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독주, 독창, 중창, 자작시 낭송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피아노 독주에는 정선주선생이 찬송가 편곡 모음을 연주해 주었고, 독창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황재금집사가 불렀다.

바이올린 독주는 「Dancing Doll」을 청년부 이주희 자매가 하였고, 이은지 어린이가 독창을 하였다. 메밀꽃 마을 문화 체험 축제」라는 제목의 작곡을 노년부 회원이신 김금희집사가 특별 출연을 하여 낭송해 주었다.

이어서 박병욱 담임목사가 독창을 하였고, 김종순집사가 「보리밭」을 불렀다. 강재덕, 강정녀, 김연숙, 민경임, 박정희, 정영란집사 등 한사랑 여전도회원이 중창을 하였고 반주는 이승신집사가 하였다.

예수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을 노년부 회원 모두가 함께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노년부 행사때마다 한사랑여전도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헌신적 수고해 주었고 자문위원이신 박희옥장로, 윤장섭집사, 박숙란장로와 한누리, 한빛여전도회 회장들께서 격려와 후원을 해 주어서 노년부 행사가 더욱 의미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특강과 송년 작은 음악회때는 박숙란장로와 계명의 권사가 육시 시계를 선물로 기증하여서 어르신들에게 1개씩 나누어 드렸고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한솔찬양대 캐롤 찬양

올해도 한솔찬양대가 캐롤찬양으로 헌신예배를 드렸다. 정영란 집사가 예배를 인도하였고, 박정희 집사가 대표기도를 인도하였다. 설교는 누가복음 24:27-35로 “엠마오 길의 두 제자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류금주목사가 하였다.

한솔찬양대가 부른 찬양곡목은 1) 참 좋으신 주님 / 김기영 2) 알렐루야 / W. A. Mozart 3)주 날 인도하시네 / Mary Mcdonald(박창훈 역) 4)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종 / 미국 캐롤 5) 칼립소 캐롤 / S. K. Coates 6)오 거룩한 밤 / Adolphe Adam 이다. 찬양대원들은 빨간 색, 초록 색 옷을 맞추어 입고 나와서 성탄의 분위기를 더했고, 찬양 중간 중간에 종을 울리며 즐겁게 찬양하여 온 교우가 성탄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황재금집사의 인도로 진행된 싱어롱은 1) 창밖을 보라 / T. 미첼 2)축하하오 기쁜 크리스

마스 / 웨일즈 캐롤 3)루돌프 사슴코 / 토니 막스 4) 실버벨 / 미국 캐롤 5)탄일종이 땡땡땡 으로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로 찬양할 수 있었다.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를 현관에 차려 놓고 차를 마시면서 교우들이 담소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한솔찬양대 올 한해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매월 첫째 토요일 1부 예배시 찬양
- 2) 매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시 찬양
- 3) 매월 첫째 수요일 백병원 신우회 예배시 (12시) 찬양
- 4) 제 168회 서울노회(안동교회)시 찬양 (4월 21일)
- 5) 서울노회 공로목사 추대식 때 찬양 (장소 : 안동교회)
- 6) 부흥회 셋째날 찬양
- 7) 4.19 선교회 주회 「구국 기도회」 (100주년 기념회관)시 찬양
- 8) 모자컴터 「흰돌회」에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흰돌회」는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머니와 자녀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이다. 위문품은 지난번 노년부 행사시에 교회 어르신들이 가져오신 라면과 장갑을 선물하였다. 장갑은 김종순집사가 500여켢레를 손수 기증하였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잔치

교회학교 성탄 축하잔치가 12월 18일 2시30분에 청년부 대표로 김영빈 형제와 박경진 자매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첫 순서로 유치부 아이들이 꼬마 산타로 입장하면서 사탕을 교우분들께 나눠드렸고 울동과 찬양으로 귀여움을 밤뱀이라는 악기를 교사들이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면서 많은 박수를 자아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칸타타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불러 주셨는데 고3 학생들의 참여가 많아서 보기 좋았다.

세 번째 순서로는 청년부의 찬양이 있었다. 가장 큰 학생들인 만큼 누구보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쁜 찬양을 드렸다.

마지막 순서로 요즘 MeBiG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동부 아이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있었다.

이 아이들의 열정적인 무대에 사회자들이 감사

기 무대에 올라가 깜짝 인터뷰를 가지기도 하였다.

아동부의 순서를 끝으로 다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같이 부르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박병욱 목사님의 축도로 은혜로운 교회학교 성탄 축하 잔치를 마쳤다.



성탄축하 음악예배

12월 25일 주일 2부예배는 성탄축하예배와 성찬식을 행하고 예배 후에는 성탄 축하 연주회를 가졌다. 음악예배로 드렸다. 헨델(G. F. Händel 1685~1759)의 “메시아” 중에서 제1부 “예언, 탄생”을 최덕천집사의 지휘로 안동교회 2부찬양대와 KBS관현악단의 협연으로 연주를 했다.

독창자는 소프라노 김은주, 알토 이현주 테너 임재홍, 베이스 임철민, 반주는 제1바이올린 2명, 제2바이올린 2명, 비올라 2명, 첼로 1명, 베이스 1명, 트럼펫 2명, 오보에 1명, 팀파니 1명, 오르간, 피아노였다.

연주곡목은 다음과 같다.

1. 신포니아(서곡)
2. 서창(테너): 내 백성을 위로하라
3. 영창(테너):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4. 합창: 주의 영광
5. 서창 (베이스): 만군의 주가 말씀하신다.
8. 서창(알토):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9. 영창(알토)과 합창: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11. 영창(베이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12. 합창: 우리를 위해 나셨네.
13. 전원교향악(간주곡): 시실리아 목가
16. 서창(소프라노): 갑자기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17. 합창: 주께 영광

18. 영창(소프라노):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20. 영창(알토, 소프라노): 주는 목자요.

21. 합창: 그 명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

44. 합창: 할렐루야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연주회였지만 온 교우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으며, 연주에 마음으로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다.



12월 담임목사 동정

- 12.5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 장로회 신학교 2학기 종강
12.15 서울노회 장로회 실행위원회 설교
12.21 백병원 신우회 예배설교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사학법 반발, "신입생 배정 거부"



본 교단 총회가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본 교단 총회(총회장:안영로)는 지난 1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전문대 포함) 교장, 총장, 이사장, 노회장 등 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보다 체계적인 활동에 나서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육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국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본 교단에는 모두 74개의 사학이 속해 있으며, 이는 단일 교단으로는 가장 많은 수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자거나 전국 7천2백개 교회에 개정 사학법의 문제를 적극 알려 이를 유권자 운동으로 까지 이어가자는 등 강경한 발언들이 줄을 이었다.

회의를 진행한 조성기 사무총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전국 노회장 회의를 소집하거나 내년 봄, 교단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 사학법 철회에 대한 교단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국민 여론이 이를 찬성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서 부담"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기독교계 사학들이 정치집단과 연결될 경우 원치않는 오해를 사게된다"며, 특정 정당과의 공조는 거리를 두

고 경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인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자성도 이어졌다. 송실대 이효계총장은 "개정된 사학법의 문제점에 대해 교계가 서둘러 논리를 정립해서 교회와 사회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헌법학자와 사학자, 역사학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원로인 이창로장로(대광고 명예이사장)도 "학교가 많지도 않은 가톨릭도 대책을 마련하느라 난린데 기독교가 너무 조용한 것 같다"면서, "노회 산하 각 교회들이 움직여야 할 때이고 총회와 노회가 나서서 지 교회에서 광고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광주 수피아 여고 최서균교장도 "총회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 홍보하고 목회자들이 설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배포해 교인들부터라도 사학법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홍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개정 사학법 불복종 운동, 위헌 소송 제기, 한기총 등 전국교회와 다른 사학 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처 등의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이원설 사무총장:안두선)도 지난 20일 프레지던트호텔 18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기독교학교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독교학교연맹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학생선발권을 되돌려주고 학생의 의사에 반한 종교계학교 배정을 강행하는 일을 즉각 중지할 것 △정부의 재정지원을 일체 거부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 등을 요구하며, 평준화 정책 폐지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독교학교연맹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학생모집 중지, 법률 불복종,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단언했다.

총회, 표준주석 편찬 '시동'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 표준주석편찬위원회(위원장:김준은)가 지난 19일 첫 모임을 갖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제90회 총회에서 총회 창립 1백주년을 앞두고 본 교단의 신학규정과 한국신학의 흐름을 담은 표준주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자원부(부장:신용호 총무:김치성)가 이 사안을 수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중은총장(장신대)과 조광호교수(서울장신대)가 각각 위원장과 서기에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집필자 선정 등 실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김중은총장 이종윤목사(서울교회) 조광호교수 강성열교수(호신대) 김희권교수(숭실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편집위원회는 내년 1월 5일 서울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집필자 담당, 집필종류 분류, 주석의 분량 등 구체적인 실무를 진행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새롭게 만들어질 주석이 교단이 지향하는 성서신학 정립을 위해 교단의 신학이념과 아카데미한 부분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중은총장은 "일제시대 때 교단 표준주석이 나왔는데 이 주석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면서, "이 맥을 이어간다는 자부심과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이념규정과 한국신학 흐름을 움직여 나간다는 측면에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우석 쇼크가 남긴 교훈

[기독교보 사설]

우리 사회는 황우석교수를 둘러싼 논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날이 바뀌면 달라지는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로 인하여 새로운 의문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워 할 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관계 연구기관들에 의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신중하게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점들은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주요 핵심은 결과주의에 집착한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부정직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황우석교수는 매우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였다. 물론 세계 최고

의 권위를 자랑하는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마저 속아 넘어갔을 정도이니 평범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를 믿은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마도 사이언스는 그 이름대로 '과학적 권위'라는 우상 앞에서, 국민들은 '국익'과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우상으로 인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방법 역시 정당하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설혹 황우석 교수의 주장대로 치료용 복제배아줄기세포가 존재하고 그러한 복제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는 과학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적 전문성은 결코 지도력으로 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황우석교수와 그의 연구에 대한 막연한 지지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 초래되게 된 것에는 주요 신문과 방송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선정적인 보도와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무책임한 정치권에도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난치병으로 고난 받고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치료용 배우줄기세포에 대한 절박한 기대와 새로운 국가적 부의 창출이라는 국민들의 경제적 기대 역시 오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데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다. 우리 사회는 이번 기회에 과학에 대한 맹신과 감상적 민족주의와 경제제일주의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회와 신앙인들은 배아라는 작은 형태로 존재하는 생명도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생명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장로교 3개교단 '하나로'

예장개신과 예장개혁, 예장합동보수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름을 사용하는 3개 교단이 최근 교단 합동에 합의하고 지난 15일 서울 종암중앙교회(조경대목사 시무)에서 교단합동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발전과 화합을 다짐했다. 이번 교단합동에 참여한 3개 장로교단은 모두 뿌리가 같은 '예장개혁'

소속이었으며, 새로 태어난 교단의 명칭은 대한 예수교장로회(개혁)으로 정리됐다.

예장개혁 총회는 이날 교단합동 총회에 3개 교단의 78개 노회에서 모두 6백여 명의 목사 장로가 총대로 참석했다. 총회는 "분열의 아픔을 극복하고 지난날의 상호 실수를 뉘우치면서 한국 교회 앞에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고 새롭게 교단발전과 화합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으며, 산하 교회는 3천 교회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날 합동총회에서 발표된 '합동선언문'은 "예장개혁 개신 합동보수 3개 교단은 서로의 이해 차이로 헤어진 후 지난 11월 22일 3개교단 합동전권위원들이 모여 합동하기로 결의한 후 동년 12월 15일 오후 2시 중앙중앙교회당에서 합동총회를 개최기로 합의하고 금일 합동된 것을 하나님 앞과 한국 교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동된 예장개혁은 지난 6일 소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교단명칭을 '예장개혁'으로 하며 △헌법과 규칙은 9개교단이 합동했던 제84회 총회 당시 것으로 임시 채용하고 △임원 및 상비부 위원은 차후 적정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예장개혁은 이번 총회에서 예장개신 출신의 장근태목사(미아소망교회)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목사 장로 부총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했으며, 총회 사무실도 서울 효제동 소재 예장개신 총회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합동위원장 조경대목사의 사회로 진행돼 박만희목사(증경총회장)가 설교한데 이어 장근태목사의 합동선언, 임원선거, 총회장 취임인사, 이봉기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장근태 목사는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세확장을 위해 계속 문을 열어 놓고 과거의 형제들 영입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내부 갈등으로 나누어 지는 아픔이 없도록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포용하여 교단내 화합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남선전련, 봉수교회 건축비 마련 박차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홍희천)는 지난 13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제64-9차 임원회를 열고, 회기 하반기 사업 점검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남선전련이 평양 봉수교회 신축공사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이를 토의안건으로 상정하고 기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했다. 임원회는 산하 남북한선교협력위원회(위원장:김용덕)로부터 공사 추진상황 보고를 접한 뒤 조속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모금계획에 따르면, 전국 50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좌' 건축헌금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는 50개 교회를 찾아 지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21일 열리게 될 중앙실행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을 추인받고, 참석한 전국단위 임원들에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부탁할 예정이다.

또 임원회는 총회가 추진 중인 '사랑의 연탄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과 올해 성탄예배를 21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한편 회장 홍희천장로와 직전회장 김용덕장로를 비롯한 남선전련 관계자들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초청으로 지난 14일 평양을 방문, 봉수교회 철골공사 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추후 공사 과정을 협의한 뒤 17일 귀국했다.

아시아 유일의 오르겔 제작소 문열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간 뒤 지난 1천년 간 대표적인 교회 음악 악기로 자리잡아 온 파이프오르겔이 아시아로 돌아와 한국에 그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

지나해 11월 기공식과 함께 지난 1년여 간의 공



사 끝에 준공된 홍성훈 오르겔마우 제작소가 지난 2일 양평군 국수리 제작소 현장에서 준공 감사에 배와 함께 정식 오르겔 제작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국수교회 김일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감사예배는 김석진목사(예수교회)의 기도와 본 교단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목사의 말씀, 앙상블 카펠라 코리아의 축송, 백금옥교수(서울신대·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이사장)의 축사, 제작소 공동설립자인 홍성훈마이스터와 최영식장도(국수교회)의 인사에 이어 강신원목사(노량진교회)의 축도로 진행됐다.

교회 음악 관계자들과 국수교회 교우,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에서 조성기목사는 '하나님의 작품' 제하의 말씀을 통해 "개혁가들과 위대한 음악과 헌멜이 한결같이 소원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의 정신을 따라 한국교회 음악과 문화사에 유익을 끼치는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백금옥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에 본격적인 오르겔 도입이 이뤄진 지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제작소가 설립될 수 있게 된 것을 오르가니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내와 아시아 유일의 오르겔 제작소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제작소 건립을 위해 대지와 건축비 등 물질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영식 장로도 이날 인사를 통해 "일생의 사업으로 알고 시작한 이 일을 통해 기독교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소중한 역사를 이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제한 뒤, "제작소 준공을 계기로 한국교회 음악에 취약했던 부분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아시아 나

아가 전세계에 우리의 소중한 음악적 자산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0년 전 오르겔 바우 마에스터 자격을 획득한 뒤 귀국, 국내에서 파이프 오르겔을 건축해 온 홍성훈 마이스터도 이날 인사에서 "우리 민족은 파이프 오르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피리를 좋아하고 익숙해 했던 민족이었다"고 전제한 뒤 "서구의 것보다 더 뛰어난 이 땅에 풍부한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래 악기들을 우리의 것으로 개량하고 심분 활용했던 조상들과 같이 한국적 음식과 영감을 표현하는 오르겔을 제작해 보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개역개정판 보급 확대

대한성서공회(총무:민영진)는 이사회를 지난 11월 29일 세미나실에서 갖고 올해 국내 성경 반포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성경 반포 현황에 따르면 성경전서가 전년 대비 1만1천6백24부가 증가한 1백71만2천8백88부가 국내에 반포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성서공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휴대하기에 편리하고 활자 크기가 적당한 성경이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성경전서 보급이 늘어난 것에 비해 단편 성경과 전도지의 보급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으며, 신약성경은 지난해 대비 3만4천여부 증가한 1백18만4천여 부가 보급됐다.

해외성서 보급에 있어서는 지난해 비해 2개국 늘어난 1백5개국에 1백39개 언어로 성경전서 2백63만2천여 부를 포함해 총 3백32만 2천여 부가 보급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존우물기

2006년 1월호 · 통권 제 155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 박 병 옥

편집인 :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 2006년 1월 1일